

5주차

사림파(士林派)의 집권과 성리학적 질서의 확산

김 성 우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성리학파의 출현

- 김종직의 점필재학파(佔畢齋學派)
- 김굉필의 한훤당학파(寒暄堂學派)
- 박영과 송당학파
- 1550년대 이후

02. 훈척세력과의 갈등

- 사화(士禍)의 발생
- 성리학 학파와 사화와의 관련성

03. 사림파의 집권과 노선 투쟁

- 사림파의 집권
- ‘신국가(新國家) 건설론’의 대두
- 붕당(朋黨)의 출현

04. 성리학적 지식인, 선비의 탄생

- ‘선비’와 ‘사(士)’
- 한국 유교화의 진전과 이상적 지식인으로서의 선비
- 이상적인 선비상(象)
- ‘원(原)(proto) 선비’

2차시

훈척세력과의 갈등

학습목표

- 조선의 4대 사화(士禍)에 대해 살펴본다.
- 성리학파와 사화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사화(士禍)의 발생
- 성리학 학파와 사화와의 관련성

사회(士禍)의 발생

무오사화(1498)

- 성종 대 김종직을 중심으로 ‘점필재학파’가 결성
- 1494년 연산군 즉위 이후
왕실, 훈구세력이 점필재학파 등 신진 관료들
‘조의제문’ 사건으로 숙청함

갑자사화(1504)

- 연산군이 모친 폐비 윤씨 사건을 들춰냄
- 당시 폐비론에 찬성한 세력들을 제거함
- 결과: 연산군의 왕권 강화,
점필재학파 다수 피해를 입음

기묘사화(1519)

- 중종반정으로 즉위한 중종이 훈구세력을 견제하고자 함
-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신진 개혁세력이 발탁됨
- 1519년까지 김굉필의 제자인 한훤당학파가 정국을 주도
- 이후 중종은 훈구세력을 통해 개혁세력을 숙청함

기묘사화 이후와 인종

- 1537년(중종 32) 기묘사림들이 복권됨
- 당시 등용된 개혁세력의 다수는 박영의 송당학파였음
- 인종(조선 제12대 왕): 성리학을 실천하고자 함
 - 즉위 9개월만에 사망

을사사화(1545)

- 인종의 이복동생 명종(조선 제13대 왕) 즉위
- 문정왕후와 소윤(小尹) 세력이 집권함
 - 인종의 외척 대운(大尹)과 사림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함
 - 훈척정치 복원

성리학 학파와 사회의 관련성

훈척세력의 정치적 공세

- 무오사화: 점필재학파에 대한 훈구파의 공세
- 기묘사화: 한훤당학파에 대한 훈구파의 공세
- 을사사화: 송당학파에 대한 훈구파의 공세

마무리

- 사림파에 대한 훈척세력과 왕실의 강한 견제
- 사림파에 대한 네 차례 사화
- 정치세력으로 떠오르는 사림파

다음 차시에는

- 사림파의 집권과 노선 투쟁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COC

기획·조정

이준희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